

## 104. 자동차생산업체의 용접공에서 발생한 안면마비

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용접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백OO은 1993년 5월 K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차체용접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2001년 12월 28일 오전 9시 30분 용접작업 중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으나, 2일동안 관찰하다가 12월 30일 한의원에서 ‘구안와사’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백OO이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용접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작업장 바닥으로부터 약 1m 60cm 높이에 대형선풍기가 국소 냉방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근로자들은 용접흠이 호흡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눈으로 용접불꽃이 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동하고 있었다. 백OO은 5명의 작업자 중 가장 좌측에서 용접을 하고 있어 대형 선풍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앙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었고, 천장(작업장 바닥으로부터 약 3.5m 높이)에 1인당 1대의 적외선 히터가 설치되어 동절기 국소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대근무는 맞교대로 주간조는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30분, 야간조는 오후 8시 30분 - 오전 7시 30분까지 각각 잔업 2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씩 근무하며 1주일 단위로 교대하고 있다. 토요일은 주간반만 근무하므로 야간반은 유급휴가가 된다. 발병일은 12월 28일 금요일로 주간반이었다. 발병 전일에도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가 온돌방에서 솜베개를 베고 숙면을 취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백OO은 원형탈모증과 지루피부염으로 병의원을 이용한 기록은 있으나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12월 28일 오전 작업시작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용접불꽃이 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눈을 감으려고 하였으나 우측 눈이 감기지 않았다. 증상이 경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2월 29일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였는데 12월 30일에 입이 돌아가고 얼굴전체가 마비되어 2002년 1월 2일 한의원 방문하여 ‘구안와사’로 진단받았다. 진단 후 3개월간 휴직하였고 4월에 복직하였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4. **결론:** 백OO의 안면신경마비는

- ① 안면신경마비 중 Bell's palsy이며,
- ② Bell's palsy의 원인 중 가장 유력한 인자가 한랭환경에의 노출과 단순포진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감염인데,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은 병력은 있으나 안면신경마비와의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기타 바이러스 감염은 근로자의 발병 전후의 병력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배제되는 반면,
- ③ 작업 중 선풍기 바람에 노출되는 한랭작업에서 근무한 것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었다.